

5. 때가 차매(2011년 7월 31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주가 때가 왔을 때 오셨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참 구주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막1: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미 지난번에 갈라디아 4:4의 말씀 때가 차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씀의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때가 찼다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때에 대한 말씀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암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비밀히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속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밀히 한다면 사단이 사람을 속여도 속수무책이 됩니다. 구주가 오시는 것과 하실 일에 대하여서 미리 미리 말씀하신 것도 사람들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주께서 오실 때에 대한 예언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를 계시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알아서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암호처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바르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고후10:5)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는 원칙을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구주기 탄생하고 침례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사실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야 어느 시, 어떠한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지시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벧전1:10,11]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했다고 말씀했지요. 구약성경에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시와 때에 대하여 예언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주가 탄생하셔야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으실 것이니, 이 시와 때에 대한 예언을 알면 구주가 오실 때에 대한 것도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이 때와 시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9장에 있습니다.

[단9:24~27]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26 육십이 이

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4절에서 이 70이레 기간 동안 이루어질 사실들을 말합니다. 여섯 가지 사건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묶으면 첫 세 가지는 죄가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구주가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70이레는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기간일까요? 70이레는 이레 곧 7일이 70번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490일입니다. 이 490일 동안 위에 말한 여섯 가지 사건,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곧 죄가 처리되는 것과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에스겔 4:6을 보면 예언적 하루는 실제로는 1년으로 계산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90일은 490년입니다. 이 490년 기간 동안 말씀드린 여섯 가지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70이레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9:25~27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일곱이레 동안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입니다. 다음 62이레가 되면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납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말씀은 7이레 곧 49년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고 그로부터 62이레 곧 434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기름부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70이레 중에 69이레가 지납니다.

문제는 이 70이레의 시작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린 때를 알면 70이레의 시작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은 유대나라가 바벨론에게 정복될 때에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훼파되었는데, 그것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에스라서를 읽으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은 기원전 538년에 있었습니다. 다리오의 명령은 520년이고, 아닥사스다의 명령은 457년입니다. 이 세 번의 명령 중에 70이레의 시작이 어느 명령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그 70이레의 시작이 어느 명령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원 27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날 때가 70이레 중에 7이레와 62이레가 되니까, 모두 69이레인데 그것은 483일 곧 483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27년부터 483년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해가 될까요? 그렇게 해보면 그때가 바로 기원전 457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한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릴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는 때까지 483년이 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벧전 1:10,11의 말씀이 바로 이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봉독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벤전1: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의 때와 시에 대한 예언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은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70이레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내린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칙령은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때에도 퇴락한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기원전 444년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를 70이레의 시작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는 때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이때는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총독들에게 느헤미야가 유대까지 가는 일에 안전을 도모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삼림감독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에 목재를 공급하라는 조서를 내린 것이고, 다른 것은 느헤미야에게 전권을 주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할 일을 하도록 위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서에 예루살렘 중건이나 성전 중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읽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일을 다니엘 9:25의 중건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에스라 7장에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의 자치권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치권을 줬다는 것은 주권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유프라테스 강 서편 총독들에게 이르자 그들이 유대 백성과 성전을 도왔다고 에스라 8:36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말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성전 재건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잘 가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의하여 70이레의 시작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인 기원전 457년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을 때와 고난당하신 때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70이레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 기원전 457년에 딱 맞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예언된 때가 왔을 때 예언된 장소에서 예언된 방법대로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한 대로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열두 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아마도 유대인의 관습대로 성인식을 위하여 갔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했습니다. 요즘은 13세에 한다고 합니다. 성인식에는 두루마리 율법을 낭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대 이야기는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사건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 나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중봉사 활동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세부터 30세까지 18년간 침묵의 기간에 예수께서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웠다는 말을 하고 그런 책도 출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침묵기간을 두고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기간에 대한 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 12살 때 성전에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에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

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눅2:51,52)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30세가 되어 공중 봉사에 나가실 때까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는 삶을 살았고 그 모든 성장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간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30세가 되어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갈 때까지 보통 사람들과 같은 가정에서 부모를 받들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 자체도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매 공중 봉사에 나가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바로 다니엘 9:25,26에 있는 기름부음을 받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1:15)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탄생하실 그 시간은 말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침례 받을 때에 대하여서는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를 지낼 것”이라고 하여 기름부음을 받는 때는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기름부음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는 기름부음을 받는 것은 특별한 직무에 임명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왕은 언제나 기름을 부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언제나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임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왕상19:16)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마치 본명처럼 사용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히브리어 메시아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무를 다 수행하기 때문에 그냥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왕이요 선지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행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침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1:32~34]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요함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굳이 성령으로 기름 붓는 일이 필요하지 않았을 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일을 통하여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분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곧 천국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신 것입니다.(막1:15) 다니엘서 9장의 70이레 예언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뻗전1:10,11에 말한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손의 양면 즉, 소등과

손바닥 같은 관계입니다. 영광은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에 있을 모든 일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부활을 뜻합니다. 고난은 물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사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에 사시는 모든 날이 고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을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눅24:46)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일로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 포함된 일이지요.

아마도 청취자께서는 침례에 대한 때는 확실히 말했지만 고난의 때는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9장 27에 고난의 때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지만 9장을 잘 읽으면 여기 한 이레 동안은 70이레 중 69이레가 지나고 남은 한 이레인 것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70이레는 연속적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부분은 예루살렘 시가지가 정비되는 7이레, 다음은 기름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이레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이레입니다. 한 이레는 7일이요 실제 연대로는 7년입니다. 그런데 이 이레의 반이 되는 3년 반이 되었을 때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메시아가 기름부음을 받은 후 3년 반이 되는 때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사와 예물은 성소봉사에 사용한 것들인데 그것은 다 구주가 희생됨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라고 골2:17에 말했습니다. 표상적인 것들이 실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상적 제사와 예물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지라고 번역된 말이 샬바트인데 쉬게 한다. 중지시키다 등의 뜻입니다. 사람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느라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도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이레의 절반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에서 제사와 예물로 봉사하던 모든 속죄 봉사가 끝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9:24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 기간입니다. 70이레는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 스테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때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방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방에 복음이 파죽지세로 전파되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과 구주가 오시고 고난당하시는 데 대한 때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각 민족 각 방언으로 증거되고 있으며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라도 구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예언과 그 성취 여부로 우리는 구주의 신원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이를 확실히 알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이를 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 예수님을 성경이 계시한 대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으면 속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고 구원을

언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주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를 말씀으로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